

국제 양돈수의사회 학술대회(IPVS)를 다녀와서 (下)



황 의 경 연구관
(수의과학연구소 병리진단과)

〈지난호 170쪽에서 계속〉

사료업계에서도 각 사료회사 별로 1명 이상 중견내지 중심이 되는 양돈수의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오랜기간 삼양사에서 질병서비스 팀장으로 활약하시는 문영현실장님, 학구파로 알려진 대한제당의 양창근박사님과 미원의 김홍집박사님, 국내 양돈계는 물론 일본에서도 주가가 높은 도드람의 정현규팀장님 등이 보였다. 기업양돈장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계열사 농장에서 한병우수의사 및 지용진수의사가 참여하였고 이중 한병우수의사는 이곳 일정 후 영국을 방문하여 양돈관계업무를 볼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 두분의 활약이 자못 기대된다.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IPVS에 참석하신 4분은 모두 수의과학연구소와 연관이 있다. 우선 현재 미네소타대학 교수로 계시는 주한수박사님은 국내에서 양돈하는 분이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거르지 않고 매년 오셔서 국내 양돈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니 말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회 첫날 제일 큰



〈사진 5〉 포스터 발표장에서 로슈 이원형부장과 필자

발표장에서 열린 PRRS 첫째 구두발표시 좌장을 맡아 주셨고, 이때 발표된 총 8개의 연제 중 절반인 4개 연제를 우리나라 사람이 발표하여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마 이 또한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지도 모를 대단한 사건일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미네소타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박봉균 연구관계서는 국내에 있을 때는 수의과학연구소 바이러스과의 대동물 바이러스 실장으로 있으면서 소바이러스를 주로 다뤘으나 현재는 주박사님의 지도하에 돼지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 국내 양돈을 위하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역시 수의과학연구소 해외전염병과에서 근무하다가 박사학위 취득차 미네소타에 유학중인 신진호연구사는 우리하고도 친숙한 Tom Molior를 지도교수로하여 매우 열심히 연구하는 신진과학자로서 앞날이 매우 기대된다.

수의과학연구소에 계시다가 70년대초에 캐나다에 가시어 학위취득후 Lethbridge에 있는 동물질병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조현주 박사님께서 PRRS에 대한 ELISA 진단법 개발에 대해 구두발표를 해주셨다. 그의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동경대 박사과정중에 있는 손덕수수의사도 생리분야에서 1과제를 발표하였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해외전염병과에서 강영배과장님과 권창희박사, 기생충과의 강승원박사, 병리진단과의 류영수박사, 박취규연구사 그리고 필자 모두 6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장 로비에는 이번 IPVS의 공식후원 업체인 세계굴지의 동물약품 메이커들이 참여하여 독립된 소규모 전시장인 일명 부스(booth)을 개설하고 자사제품의 선전에 열기를 내뿜었다. 후원업체로는 우리의 귀에 낯익은 파마시아-업존(Pharmacia & Upjohn), 화이자(Pfizer Animal Health), 산도스(Sandoz), 시바(Ciba), 바이엘(Bayer),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롱메류(Rhone Mérieux), 솔베이(Solvay), 인터벳(Intervet), 홉스트(Hoeschst), 엘랑코(Elanco) 및 사이나미드(Cyanamid) 등이다.

이중 몇 곳에서는 오후에 맥주 또는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하여서 목마른 우리의 입을 적셔주



〈사진 6〉 IPVS 공식 후원업체에서 설치한 전시장(부스)

었다.

5. 이번에 발표된 IPVS 연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면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각 연제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부득이 생략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된 특강연제는 호주 빅토리아주 동물과학연구소의 Hemworthy & Coleman이 발표한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관계가 돼지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초 10개 연제였다(표 1).

IPVS 발표연제는 구두 245연제 포스터 422연제 등 총 667연제였다. 연제수가 많아 구두발표는 3일 동안 계속하여 4개 장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특강 연제 발표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8:00시까지 계속되었으며 한 발표 과제당 소요시간은 15분으로 10분 발표와 5분 질의로 진행되었다(표 2). 포스터 연제 또한 너무 많아 한꺼번에 모두 진열하지 못하고 발표연제를 A조와 B조로 나눈 후 3일을 반으로 나누워 하루 반씩만 게시하였다. 포스터 발표연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는 구성 및 배열에 신경을 써야하고 반드시 사진 등이

첨가되어야 하겠다.

국내 참석자가 발표한 연제는 총 19개였다. 연제의 제목과 발표자는 <표 3>과 같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외 미국, 캐나다 및 일본에서 활

약하고 있는 교포 및 외국 학위과정 연수자들의 발표한 발표과제는 모두 6과제이며 그 제목 및 발표자는 <표 4>와 같다.

<표 3> 국내 참가자 발표연제

순번	제 목	연 자
1	국내에서 PRRS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역학조사(1994-1995)	강영배 외 5명(수의과학연구소)
2	PRRS 생독백신(인겔백)의 효능 및 안전성 시험	강영배 외 5명(수의과학연구소)
3	국내에서 분리한 PRRS 바이러스의 특성	김용주 외 6명(수의과학연구소)
4	약독화 PED 백신 야외시험	권창희 외 7명(수의과학연구소)
5	약독화 HC백신(LOM) 접종이 돼지혈액중 림프구아군의 분포율에 미치는 영향	황의경 외 4명(수의과학연구소)
6	국내 돼지 유사산증의 원인질병별 분류	황의경 외 4명(수의과학연구소)
7	MMEW(수정투약조기이유)법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 부재 신돈군의 조성	박취규 외 6명(수의과학연구소)
8	포유자돈 대장균증에 대한 Naxcel(ceftiofur) 치료효과	한정희 외 2명(강원대학교)
9	투약조기이유(NEW)시 린스마이신 및 낙셀 투여효과	한정희 외 2명(강원대학교)
10	이유자돈에서의 린스마이신 음수 투여효과	한정희 외 2명(강원대학교)
11	돼지 콕시듐증(I.suis)에 대한 Baycoxin 효과	윤희정 외 5명(서울대학교)
12	국내 사육모돈에서 PRRS 바이러스의 혈청양성율	천두성 외 2명(서울대학교)
13	이유후 대장균성 설사 예방 및 성장촉진을 위한 Neosin premix 첨가효과	김봉환 외 2명(경북대학교)
14	국내 도축돼지의 폐로부터 분리한 Str.suis의 생화학적 및 혈청학적 특성	소신희 외 3명(경북대학교)
15	In situ hybridization 기법 이용 PRRS의 진단	박남용 외 3명(전남대학교)
16	투약에 의한 유행성 폐렴 감염돈군의 관리	고홍범 외 3명(전남대학교)
17	TGE와 PED 바이러스의 nucleocapsid 단백질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및 cDNA probe hybridization	김철중 외 3명(충남대학교)
18	A. pleuropneumoniae균의 혈청형, 응집반응에 의한 검출 및 Enrofloxacin에 대한 감수성	예재길과 박경윤(바이엘코리아)
19	돼지에게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사료첨가가 호흡기질병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원형 외 5명(로슈 코리아)

* 수의연(7), 강원대(3), 서울대(2), 경북대(2), 전남대(2), 충남대(1), 바이엘(1), 로슈(1)

<표 4> 국외 참가자 발표연제

순번	제 목	연 자
1	돼지 기관지환배양을 통한 PRRS 바이러스의 병원성 규명	박봉균 외 2명(미국 미네소타대)
2	임신말기에 PRRS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후 태어난 자돈에서 PRRS 감염예방 효과	박봉균과 주환수(미국 미네소타대)
3	In situ hybridization 기법 이용 웅돈조직에서의 PRRS 바이러스의 확인	신진호 외 3명(미국 미네소타대)
4	웅돈 정액에서의 바이러스 핵산 검출	신진호 외 4명(미국 미네소타대)
5	간접 ELISA 이용 PRRS 검사 : 고품질 ELISA 항원생산	조현주 외 2명(캐나다 동물질병연구소)
6	홍막페렴 이환돼지에서의 항생물질에 대한 혈장 α ₁ -acid 당단백질 결합능과 항체역가와의 상관성	손덕수 외 2명(일본 동경대)



〈사진 7〉 옛날 성(Castle)에서 열린 환송 만찬(Farewall Party)전 민속놀이공연 전통의상을 입고 깃발을 공중에 던지는 모습



〈사진 8〉 로마의 대 경마장(20만 관객 수요)을 배경으로 우로부터 김봉환 교수, 채찬희교수, 이원형부장, 원세현과장, 한정희교수, 최형규차장, 필자, 정현규실장, 신현준과장

☐ 맺는말

1998년 영국 대회 및 2000년 호주 대회에도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양돈 전문수의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한 좋은 연계를 발표하여 우리의 양돈관계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뿐만 아니라 발표된 많은 연구과제 중에서 좋은 연구결과를 발견하고 이를 도입하여 국내 양돈업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무조건 참석만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양돈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을 축적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세계적인 대행사의 맞추어서 2002년 IPVS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을 몇몇 분들께서 개진하셨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우선 국내에 양돈관련 협의회 또는 양돈관련학회 등이 먼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에 관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2002년 아시아에서는 태국에 이어 2번째로 아시아에서 양돈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였으면 하는 마음간절하다.

본지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